

스페인어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과 음성인식 멀티미디어 활용

양 성 혜

단독/고려대학교

Yang, Sung-Hye(2003). Materiales de multimedia para la enseñanza de la destreza de expresión oral del español, *Revista Iberoamericana*, 14, 133-153.

Por parte de los estudiantes de español, la destreza de expresión oral es el dominio más difícil de dominar. En este estudio, analizamos sus razones y proponemos una solución para dicho problema, que será la aplicación de materiales de Multimedia con ASR(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unque las tecnologías de ASR aún deben perfeccionarse bastante, gracias a este avance, las actividades de expresión oral y su evaluación llegan a superar su límite. En especial, analizamos dos CD-Rom Titles aplicados de ASR como 『Tell me More Spanish』 y 『Rosetta Stone Spanish』 respecto de la destreza oral.

Key Words: Destreza de expresión oral/ Materiales de Multimedia/ ASR, 말하기 영역/ 멀티미디어 자료/ 음성 인식

I. 서론

현대 언어학(Linguística general)의 흐름은 개별 언어간의 '다양함' 속에 숨겨진 '보편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리와 단어내의 구조 및 문장의 구조와 의미에서 각 언어의 양상을

‘기술(Describir)’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명(Explicar)’하기 위해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언어학의 진보를 가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어학의 흐름을 따라 발전한 ‘언어 습득 이론(Teorías de la adquisición de las lenguas maternas/ extranjeras)’에서도 역시 보편성을 찾을 수 있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아기의 첫 발화가 언어를 불문하고 유사하다라는 점, 출현하는 형태소의 순서와 오류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점, 문장 구성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현상 등이 패턴화되어 있다는 점 등이 이미 선연구에서 밝혀졌다. 성인의 외국어 습득에서 찾아지는 보편성은 모국어 습득 양상과는 사뭇 다르지만, 자연스럽게 목표어를 접하기 어려운 외국어 교육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듣기’와 연결된 ‘말하기’ 영역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아이들이 문자언어보다 먼저 구두언어를, 그것도 완벽한 수준으로 구사하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모국어 습득에 대별되는 이와 같은 성인 외국어 학습자의 특징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보편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흥미도를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읽기’와 ‘쓰기’보다는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¹⁾ 관심이 높다는 것은 학습자들의 요구가 외국어로 ‘듣고 말하기’, 즉, 외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 특정 영역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성인 외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아이는 언어의 특정 영역에 대한 의식적인 관심을 나타내지 않지만, 성인 학습자들은 관심과 요구가 있다는 점이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외국어를 배워 의사소통 하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말하기 능력 배양, 이와 같은 힘겨운 줄다리기의 과정이 오늘날

1) 황성혜(1989)는 서울 소재 외국어 고등학교 2개교의 1학년 학생 90명,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학습 방법 및 태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다. 언어의 4기능 중 가장 자신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0%가 ‘듣기’, 34%가 ‘말하기’라고 대답해 ‘구두 영역’이 모두 74%를 차지해 ‘문자영역’보다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김희숙(2002)에서는 대전 소재 여자중학교 2개 반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하자, 학생들의 55%가 듣기를 50%가 말하기라고 응답해, 취약한 부분인 ‘듣기, 말하기’ 영역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외국어 말하기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어 교육에서 교수자와 연구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학습자들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격차를 좁히는 데 늘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괴리 현상은 현재 한국 내 스페인어 교육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특히 ‘말하기 능력’ 배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말하기 과정

왜 말하기 영역에 있어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할까? 말하기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재과정인 ‘듣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듣기 과정은 이루어졌으나, 말하기 자체의 기술 부족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 언어의 의사소통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끊임없이 청자와 화자로서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듣기, 말하기의 원리’는 ‘협력의 원리’, ‘순환의 원리’, ‘적절성의 원리’로 세분할 수 있다(김종택, 1997; 피혜정 2002 재인용). 첫째, ‘협력의 원리’는 듣기, 말하기 과정이 화자와 청자가 내용을 주고 받는 공동의 작업이므로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 협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순환의 원리’는 주고받는 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듣기와 말하기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끌어서는 안됨을 뜻한다. 끝으로, ‘적절성의 원리’는 상대에 대한 이해나 화제의 선택, 말씨의 선택이 언제나 상황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듣기 말하기의 3가지 원리는 모국어의 경우이나 외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목표어로 듣기와 말하기 작용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위의 원리를 확장시켜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협동’이 이

루어지는 않는 경우로 대화의 공동 작업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때 원인은 총체적으로 대화 언어 자료가 부족하거나 말하기 기술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순환이 적절하게 못 이루어지는 경우로, 듣기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의 말하기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와, 듣기과정은 이루어졌으나 말하기 기술이 부족하여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적절성’이 부족한 경우로, 대답을 하여 반응하였더라도 상황이나 상대에 맞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는 장애를 뜻할 것이다. 결국, 이 경우는 화용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모국어의 듣기 말하기 원리를 확장시킨 외국어 듣기 말하기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외국어 듣기 말하기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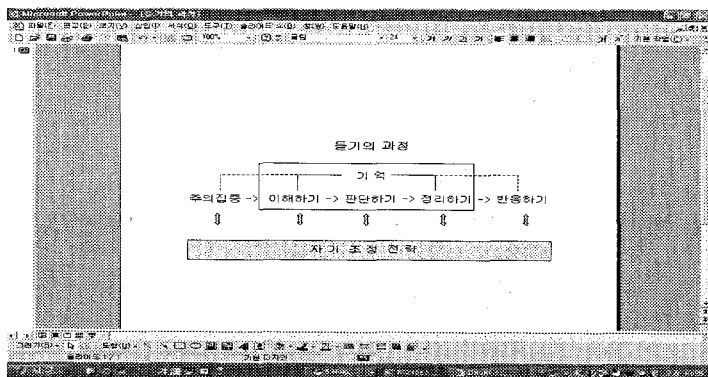
장애 현상	원 인
‘협동’ 장애	* 표현, 즉, 내재된 표현(in-take) 부족 * 수행, 즉, 언어 표현 기술 부족
‘순환’ 장애	* 이해, 즉, 듣기 과정 장애 * 듣기 과정(이해) 통과 → 말하기 과정(표현/수행) 장애
‘적절성’ 장애	* 화용적 맥락(이해와 표현)에 대한 이해 부족

위에서 외국어로 듣기 말하기 할 때 발생하는 장애와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듣기와 말하기의 장애란 과연 어떠한 세부적인 인지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협동적 언어 사용의 과정이나, 이러한 언어 사용 과정은 화자와 청자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내부 언어 활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음성 언어로 표현하기까지 화자는 내부에서 의미를 조직하여 ‘음성언어화’하는 내적 활동을 일으키는 반면,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청자는 ‘음성기호’를 ‘의미’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고도의 인지적 과정으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인지적 체계의 내면화를 얼마만큼 구축했는가에 따라

말하기 능력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듣기의 첫 단계는 ‘주의집중’ 단계로 시작된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화자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자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선택적인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 선택적 주의집중이 이루어지면, ‘이해하기’ 단계와 ‘정리하기’ 단계를 포함한 내부적 듣기 활동을 이행한다. 이때, 들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스키마를 통해 의미를 재구성한 후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 내용을 판단한다. 이러한 이해와 판단을 거친 후 적절하게 말하기로 반응한다. 이 모든 단계에서는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을 스스로 적절하게 통제,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듣기 과정을 모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피혜정, 2002).

<그림 1> 듣기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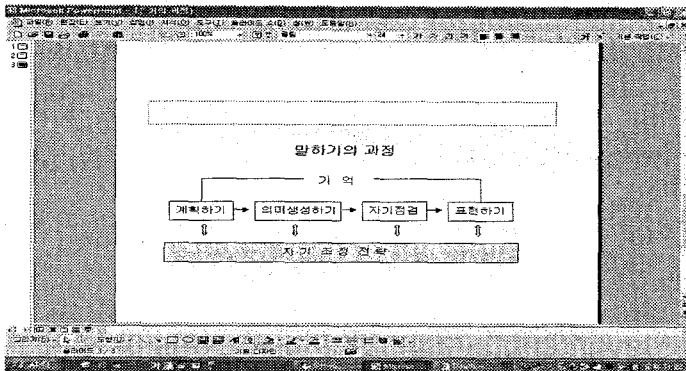


피혜정(2002)의 듣기 모형을 바탕으로 외국어 활동에서 말하기의 상호작용적 영역인 ‘듣기’에서 장애가 생긴다면, ‘말하기’로 연결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듣기의 첫 단계인 ‘주의집중’에서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일차적으로 소리를 식별할 수 없거나, 소리를 식별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을 식별할 수 없어 선택적으로 주의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내용의 ‘이해’, ‘판단’, ‘정리’ 작용이 일어날 수 없어 결국 말하기로 ‘반응’할 수 없을 것이다. 청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해’, ‘판단’, ‘정리’ 과정은 인지적 과정으로 스페인어 어휘

및 표현의 음성 형태를 듣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의미를 추론하는 강화된 학습 활동을 통해, 스페인어 인지적 체계를 구축해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스페인어 교수자들의 역할은 자명하다. 듣기 과제를 실시하되 기계적인 음성 형태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서 ‘1차적 의미’로 ‘배경지식에 걸러낸 2차적 의미’로 판단, 정리할 수 있는 인지적 과정을 촉진하는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다.

말하기는 두 가지의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계획하기’와 ‘음성 언어로 표출하기’이다. 화자는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무엇을 말할 것 인지를 먼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음절, 단어, 구절, 문장 등의 발화를 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말을 하는 어떤 순간에 ‘계획하기’와 ‘표현하기’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며, 담화 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말하기의 과정은 초인지(meta-cognition)²⁾에 의해 조정 가능하다. 이 초인지 지식을 상황에 따라 조정, 활용하는 작용이 말하기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말하기 과정의 인지적 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피혜정, 2002).

<그림 2> 말하기 과정



- 2) 초인지(metacognition)란 인지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인지의 전반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인지가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면, 초인지는 그러한 배경지식을 통해 상황에 맞게 계획, 확인, 통제, 검증, 수정, 평가의 과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피혜정(2002)의 말하기 과정 모형에 바탕을 두고,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말하기 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가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계획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않는 경우인데, 이는 주로 ‘듣기 과정’이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했을 때이다. ‘계획’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것은 ‘의미생성’과 ‘자기점검’에 자신을 잃게 되어 ‘표현하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화자는 말을 더듬거나, 고쳐서 말하거나, 발음에 있어 오류를 범하거나, 긴 휴지기를 두는 등 상호작용을 막는 부정적인 수행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말하기 학습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말하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임기응변할 수 있는 화용적 기술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 것이다. 말하기 계획에서 점검까지의 과정이 미처 끝나지 않았을 때, 시간을 버는 ‘Bueno’, ‘Pues’, ‘Es que...’와 같은 화용적 연결사의 사용과 화자에게 다시 한번 말해 줄 것을 요청하는 표현 등을 따로 연습시킬 필요가 대두된다.

듣기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과 말하기에서 요청되는 인지적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인지적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행 스페인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말하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생각해 보자.

2.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페인어 말하기 교육에서 있어 문제점을 아래의 5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 ① 전체 수업이 ‘읽기’ ‘쓰기’에 편중되어 있다.
- ② 말하기 수업 시간에 교재 및 교육자료가 직접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연결되지 않는다.
- ③ 말하기 수업 시간에 교재 및 교수법이 직접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연결되지 않는다.
- ④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실시되지 못해 피드

백되고 있지 못하다.

⑤ 말하기 수업 내 교사 vs. 학생의 면대면 교육의 의존도가 높다.

첫째, 스페인어 교육 과정이 ‘읽기’, ‘쓰기’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 교육 과정의 특성상 문학 및 문화 관련 텍스트 및 비평 관련 수업의 비율이 높다보니 4영역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은 ‘읽기’이고, 이외 음성언어 영역인 듣기, 말하기 영역은 ‘회화’ 수업에서 다루어지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져, 학습자들은 말하기를 위한 음성언어의 input이 적으며, 말하기로 활용하는 기회도 적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지적할 사항은, 말하기 수업 시간이 이루어질 때, 교재 및 교육 자료가 직접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연결되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회화 시간에 문법 교재를 쓴다든지, 학생들의 말하기 참여가 전혀 없는 교재를 쓴다든지, 말하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 전제된 의사소통을 유도해야 하나, 상황이 결여된 교육 자료를 쓴다든지, 이처럼 적절하지 못한 교재 및 교육 자료를 쓰는 경우 말하기 수업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셋째로 말하기 수업의 교수법이 ‘말하기’를 활성화하는 교수법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 십년 간 외국어 교육은 문법-해석 교육 위주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수내용으로 많이 변화되어왔다.³⁾ 교수법에 따라 첫 수업시간부터 말하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듣기만을 제공하고 초기에는 전혀 말하기가 강요하지 않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교수법에서는 말하기 영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모국어 습득 과정과 외국어 습득 과정을 동일시하느냐 또는 다르게 보느냐에 따라 말하기 교육 도입의 시기가 결정되었다고 분류

3)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개념이 1970년대 외국어 교육에 도입된 후 여러 가지 의사소통 위주의 교수법이 발달했다. 목표가 학습자와 원어민과의 유의적인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맞추어짐으로서 교재나, 수업활동의 초점이 언어적 형식(linguistic form)에서 언어의 기능(language function)을 익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활동에서는 말하기, 듣기영역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실제상황과 유사한 유의적인 상황 속에서 목표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활동이 개발되고 있다.

할 수 있다(김성찬, 1998).

외국어 학습과정이 모국어 학습과정과 같다고 여기는 교수법은 아동이 모국어 습득시처럼 먼저 듣기만 가르치고, 나중에서야 말하기를 가르치고, 이후에 읽기, 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말하기를 후차적인 과정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예로 Krashen & Terrel(1983)이 제안한 ‘자연교수법’(Natural Approach)과 James Asher(1977)가 주장한 ‘전신반응법’(Total Physical Response = TPR)이 있다. ‘자연교수법’은 이해 중심의 대표적인 교수법으로 학습자가 제공되는 언어 자료를 파악하면 언어 습득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말하기는 이 습득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보아 외국어 학습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자신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i+1$) 언어적 입력을 제공하기만 하고, 학습자는 처음부터 말할 필요가 없다. ‘전신반응법’ 역시 학습자가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때까지는 말하지 않고 교사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교수법이다.

반면에, 외국어 학습과정이 모국어 학습과정과 다르다고 여기는 교수법은 외국어 교육시 처음부터 말하기를 권장한다. 대표적인 교수법으로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의사소통 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 ‘무언교수법’(Silent Way), ‘집단언어교수법’(Community Language Learning) 등이 있다.

끝으로, 말하기 영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 교수법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이 있다.

이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말하기 도입시기에 따라 분류한 외국어 교수법

말하기 도입	교수법	근간
N ⁿ 나중예	자연교수법, 전신반응법	L1=L2
N ⁿ 처음부터	직접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 의사소통 교수법, 무언교수법, 집단언어교수법	L1≠L2
고려 안함	문법 번역식 교수법	

말하기 활동을 처음부터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말하기 능력의 향상

과 직결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라면 교수자는 교실 밖에서 자연스럽게 목표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실제 상황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수업 활동을 구성하여 학습자 스스로 말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위적으로라도 교실 환경 안에서 말하기 영역의 발달을 돕는 수업을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교수자가, 인위적인 상황이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기 활동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점이다.⁴⁾ 이는 일반적으로 모국어의 경우 모국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동적으로 말하기 능력을 습득하지만, 외국어의 경우 인위적으로 명시적 학습이 강요되어 학습자가 다른 인지적 경로를 거치기 때문이다(Ellis, R. 1985; 임창근 & 신혜정, 2001). 그러므로,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배양의 결과는 교수자의 교수법 및 교육 자료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귀결지을 수 있다.

넷째,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실시되지 못해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인 말하기를 위한 피드 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듣기와 말하기 평가가 음성 언어의 특성상 수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방법론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회화 수업일 경우 수행과정 중 교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하거나, 평가 시간을 따로 두어 단편적으로 실시하거나, 필기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평가에서 말하기의 기본 틀인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평가가 ‘말하기’ 능력 측정에 직접 연결되지 않아 학습자는 말하기에 대한 피드 백을 받지 않고,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말하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처럼 말하기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습자 뿐아니라 교수자도 마찬가지이다. 전은주(1999)의 다음의 표는 듣기, 말하기 교수-학습 지도시의 어려운

4) 최근 스페인어 교육 분야에서는 말하기 또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대한 방안이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황성혜, 1989; 황은미, 1993; 한준구, 1993; 박윤경, 1993; 조금순, 2000; 이지연, 2002).

점을 보여주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교육 내용이나 지도방법 보다 '평가'임을 알 수 있다.

<표 3> 말하기, 듣기 영역의 지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항목	교육내용을 모르겠다	지도방법을 모르겠다	평가(방법)을 모르겠다	기타
비율	9.3	33.4	44.1	13.2

전은주(1999), 『말하기 · 듣기 교육론』, 박이정, p.149.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내 말하기 수업은 교사 vs. 학생의 면대면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영어처럼 외국어 교육의 장이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된 경우와 달리 스페인어 말하기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문제는 대학 교육에서는 95년 이후 교양 외국어과목을 강화하여 원어민 교수자와의 회화 위주의 수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원어민 교수자가 있거나, 교포 학생들이 있다하여도 교수법 및 교육 자료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거나 회화 수업 시간 할당이 턱없이 부족해 전체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말하기 능력 향상에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유일한 교수 학습 통로로 학습자들이 원어민과 면대면 대화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활성화로 면대면 수업의 의존도를 줄이며, 학습자들의 자가 학습을 기대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⁵⁾를 통한 외국어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교실에서만 한정되었던 말하기 수업이 원어민과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목표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실제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화상 수업도 가능하게 했고, 외국어 교육용 소프트웨어도 개발됨으로써 컴퓨터와 말하기 연습도 가능해 졌다.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멀티미

5) '멀티미디어(Multimedia)'란 'Multi'와 'Media'의 합성어로 '다중매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문자, 그림, 음악, 영상, 그래픽 등 여러 가지 영상매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디어 교육 분야이나, 원어민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 교육 실정에서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멀티미디어 교육’을 고려해 보는 것이 긍정적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어 앞서 살펴본 스페인어 교육 현실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목표를 두고 본고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의 스페인어 ‘말하기’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멀티미디어 활용 말하기 교육

(1) 멀티미디어 인터넷 활용

스페인어 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척된 분야 중의 하나는 멀티미디어 인터넷 활용 방안이다(최재철, 1999; 김경희, 2001; 김소연, 2001; 이영운, 2000; 박성민, 2001; 유영남, 2002). 이들 연구에서는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이용한 외국어로서 스페인어 교육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한다. 위 선연구들은 주로 전자우편의 작문활동이나 사이트의 읽기 자료 이용 등 문자기반의 의사소통 및 자료 이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말하기 영역에 초점을 둔 활동도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정보사이트를 활용한 말하기 수업
- ② 발음 사이트를 활용한 말하기 수업
- ③ 보이스/화상 채팅 프로그램 활용한 말하기

첫째, 정보사이트를 이용한 말하기 수업 방안은 인터넷의 여러 가지 정보 사이트를 말하기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인터넷의 읽기, 듣기자료는 말하기 활동을 하기 위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자료로서의 기능이다. 예를 들어 여행에 관한 말하기 활동을 할 때 유명한 여행사이트 검색하여 사이트에 나오는 그림자료나, 특정 장소에 관해 대화의 주제를 교사가 제시하는 등 자료만 인터넷상

의 것을 활용하고 목표 구문, 대화 등은 교사가 구성한다.

둘째, 발음 사이트를 활용한 말하기 수업이다. 발음 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발음연습을 하는 경우로 교사컴퓨터만 발음사이트로 연결하여 목표 발음의 소리를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들려주고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발음 사이트가 음성 부호와 주요 발음을 소리파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발음을 녹음하는 기능까지 있는 사이트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보이스 채팅 또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 활용한 말하기 활동이다. 보이스 채팅, 화상 채팅과 같은 인터넷 기반의 통신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의 원어민과 직접 대화하는 말하기 방법으로, 실제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어민을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방법과 유료 어학사이트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원어민 교사를 연결시켜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어민을 만나는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음성 파일 전송 기술의 발달로 이미 인터넷을 통한 원어민과 목표어로 대화가 가능해진 지금 인터넷을 이용한 원거리 교육이 가능해진 것은 외국어교육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그러나, 원어민 화자 교사와의 화상 말하기 활동을 제공하는 영어 교육사이트는 많지만, 스페인어 사이트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원어민 대화자가 한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한 교수법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 교사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도 부각된다.

이처럼 인간 대 인간(human interface)의 단점을 보완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말하기 활동은 인간 대 기계(human-machine interface)의 자유로운 대화 활동을 기대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최근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거듭하는 ‘음성인식(AS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음성 합성(TTS, Text-to-Speech)’ 기술의 결과로 가능해져 외국어 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기술의 스페인어 교육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어 본고에서는 새로운 말하기 교육 방안으로 이를 상세히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2) 음성인식 기술 이용한 멀티미디어 교육

음성인식(AS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과 음성합성(TTS, Text-to-Speech)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을 극복하면서 최대한 인간에게 최적화시킨 환경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발전되어 왔다. 컴퓨터의 가장 불편한 점 중의 하나는 명령을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처럼 직접 음성으로 명령어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고자 발전되었다. 이를 위해, 발음에 따라 입 모양과 혀의 위치 변화로 특정한 주파수를 갖는 인간의 음성을 분석하여, 발생된 음성을 전기 신호로 변환한 후 음성 신호의 여러 가지 특성을 추출해 사람의 발음을 인식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음성인식’이다. 즉, 문자를 통해 컴퓨터에 사람의 소리를 이해시키는 기술이다.⁶⁾

‘음성합성(TTS, Text-to-Speech)’⁷⁾이란 문자 정보 또는 기호를 인간

6)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화자’, ‘발음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적용 화자에 대한 분류 - 첫째, ‘화자 종속’ 음성 인식 시스템은 사용 전 사용자 음성을 저장하여 등록 한 후 실제 사용시 입력된 음성의 패턴과 저장된 음성 패턴 비교(pattern matching)하여 인식이 이루어지는 특정 화자의 음성 인식으로 휴대폰의 voice dialing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화자 독립’ 시스템은 불특정 다수 화자의 음성 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다수 화자의 음성을 수집하여 통계적인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써 학습된 모델이 인식됨으로, 특정 화자의 특성이 아니라 화자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추출하여 구축된 시스템이다. 셋째, ‘화자 적응 기술’은 화자 독립 시스템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음성에 적합하도록 인식 모델을 변형하는 기법으로, 처음에는 인식률이 떨어지지만, 시스템이 점차 화자의 음성적 특징에 적응하여 구축됨으로써 인식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화자적응 시스템’의 예로는 음성인식 증권 서비스나 음성인식 PC가 있다.

(2) 발음 방식에 의한 분류 - 첫째, 고립단어 인식 시스템으로, 휴대폰의 voice dialing 등이 있다. 둘째, 연속단어 인식 시스템으로 문장 단위로 인식 수행한다. 연속어의 경우, 한 단어의 특성이 인접한 단어의 발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조음효과(coarticulation effect)’가 인식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되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핵심어 인식 시스템으로, 연속으로 발음된 음성에서 특정 단어만을 검색하여 인식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 항공의 전화 예약 서비스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표 부탁드립니다”의 발성 중 ‘서울’과 ‘부산’만을 인식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넷째, 연속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연속된 낭독체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로 음성 구술기(Dictation)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영어의 경우 상용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화체 음성인식 기술은 사람과 대화하듯 대화체로 발성하면 이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현재 완벽한 인식률을 가진 대화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진 업체는 아직 없고 계속 개발 중이다.

의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기술로, 모든 음소에 대한 발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시켜 연속된 음성을 생성해 낸다. 이때 음성의 크기, 길이, 높낮이 등을 조절해 자연스러운 음성을 합성해내는 데, 자연스러운 음성을 합성하기 위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요한다.

음성인식 기술은 현재 음성구동 컴퓨터, 무인 전화번호 안내, 음성구동 주문형 비디오, 각종 음성 안내 서비스 시스템 등에 상용되고 있으며, 음성 웹 브라우저, 받아쓰기 프로그램, 음성 명령기, 음성게임 등도 나와있다. 최근 음성 인식 연구는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하는 '대화체 음성인식'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응용하여 외국어 교육 학습 활동에 대한 개발이 많지 않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음성인식 기술은 외국어 교육에서 두 가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첫째는 학습자와 컴퓨터 프로그램 내용(human-machine interface) 간에 이루어지는 말하기 연습에서의 활용이며, 둘째는 컴퓨터가 채점자가 되는 외국어 말하기 평가에서의 활용이다. 앞서 현행 말하기 교육에서 부각된 문제점이 말하기 연습 기회의 부족과 말하기 평가의 객관성 부족 등이었는데, 음성인식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육이 언어의 다른 영역보다 말하기 영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말하기 교육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고무적이다.

스페인어 분야에서 이러한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교육 자료는 유럽 프랑스에서 제작된 『Tell me More Spanish』와 미국에서 제작된 『Rosetta Stone Spanish』를 예로 들 수 있다. 각 자료는 CD-Rom Title과 인터넷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두 가지 형태로 학습자에게 유료로 제공된다.

7) 음성 합성 기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한 어휘 음성합성 기술: 필요한 음성 조각을 미리 녹음했다가 연결시켜 연속된 음성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114 ARS 전화 번호 안내에서 사용된다. 기술적으로 간단하지만, 문장 형태가 제한되며 음성 연결 부위가 부자연스러운 단점이 있다.

(2) TTS(Text to Speech) 기술: 합성 대상어휘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문자 형태의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 억양, 끊어 읽기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음성과 유사하게 구현한다. 기술적으로 어려우나, 자연스러운 음성을 합성해 낼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스페인어 교육 CD-Rom Title>

- ① Tell me More Spanish (Auralog사 제작)⁸⁾
- ② Rosetta Stone Spanish (Fairfield Language Technologies사 제작)⁹⁾

이 두 음성 인식을 이용한 CD-Rom Title의 공통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음성인식 스페인어 교육 CD-Rom Title의 특징>

① 일상 생활의 사진, 이미지, 동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환경의 장점을 살려 학습자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유도한다. 특히 문법과 어휘는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사용한 게임으로 구성하여 동기를 유발시키는 장점이 있다.

②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주요한 말하기 연습을 이끌어낸다. 컴퓨터의 질문을 듣고, 학습자가 알맞은 답을 3개의 옵션 중에 선택하여 소리내어 읽으면 정답 여부를 컴퓨터가 표시해 주고, 원어민의 녹음된 발음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8) Tell me more는 스페인어 언어학 교수들이 마련한 학습 난이도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기초 실력습득과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며, 초급, 중급, 고급, 비즈니스의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각과는 Video - Pronunciation - Dialogue - Exercises - Reference Work - Lesson Report - Options - Help로 구성되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메뉴로 들어갈 수 있어 본인이 언어 영역별로 선별해서 학습할 수 있다. 말하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Dialogue’와 ‘Pronunciation’ 부분이다.

9) Rosetta Stone Spanish는 1, 2로 구성되며, 각 19개 Uni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Unit은 10-12개의 Lesson으로 이루어져 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4가지 언어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기술별 연습문제와 Test를 통해 자기 진도 및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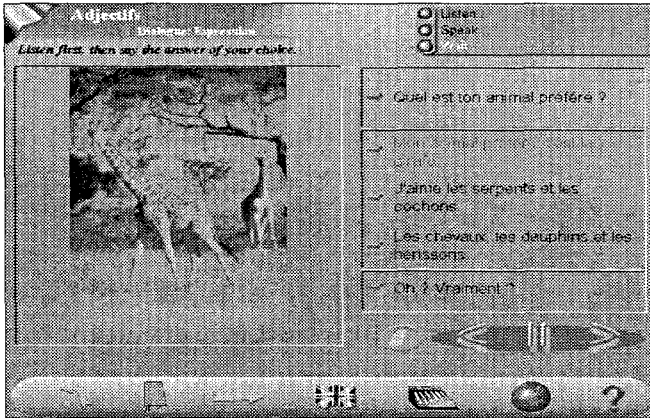
첫째, 듣기 기능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듣기를 통하여 단어나 문장을 직접적으로 단어나 문장을 정확한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연결하여 뜻을 인지하게 한다.

둘째, 읽기 기능은 글을 읽어주지 않고 단지 글과 사진만 표시하여 읽기 기능을 훈련한다. 사진과 학습자가 선택한 글이 맞는지 컴퓨터가 평가한다.

셋째, 말하기를 위해 음성인식기능은 학습자의 음성을 녹음한 후 원어민의 음성과 같이 들려주며, 성적표시기에서 재빠르게 학습자의 숙련도를 표시해주며, 목소리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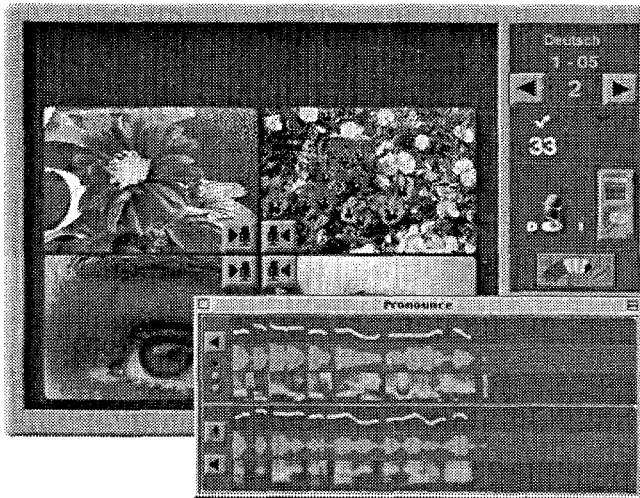
넷째, 쓰기를 위한 받아쓰기에서는 먼저 학습자가 사진을 선택하면 컴퓨터가 음성을 들려 주고 학습자는 들은 내용을 키보드로 입력한다. 이때 사용자가 입력하다 실수를 하면 알려주며 다음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림 3> 『Tell more More』의 Dialogue 부분



③ 발음 연습 부분에서는 학습자의 발음을 음성분석 장치의 도움으로 원어민의 발음과 비교하여 파형을 그래프로 보여주며 계속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하여 발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4> 『Rosetta Stone Spanish』의 발음 연습 부분



④ 자가 학습평가 시스템으로 컴퓨터가 진도 및 학습결과를 점검해주어 지속적인 학습 동기 부여 및 자기 조절 학습을 할 수 있다.

⑤ 학습자의 정의적 장벽을 낮추어 준다.¹⁰⁾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CD-Rom Title의 말하기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와 기술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한계를 드러낸다.

<음성인식 스페인어 교육 CD-Rom Title의 교육적 활용의 한계>

① 말하기 학습이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유창성을 측정하거나 도모하는데는 미흡하다. 말하기를 구성하는 것은 발음 뿐만 아니라 의미론, 통사론, 화용론, 화행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 정확한 답과 발음만을 학습시킴으로서 ‘유창성’에 대한 강화는 없다.

② 학습자의 발화를 이미 프로그램된 원어민 화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추어 인식하므로 미세한 차이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답이 맞더라도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나, 녹색불이 켜졌을 때 학습자는 마이크를 대고 대답해야 하는데, 시간대를 벗어나면 인식을 하지 못해 재차 답을 요구해 학습자를 피곤하게 만든다.

③ 마지막으로 제일 큰 단점은 질문을 컴퓨터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데이터 베이스의 한계 때문으로, 학습자가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학습자가 컴퓨터의 질문에 대답할 때에도 프로그램된 3개의 옵션 중 선택하여 답하게 제한하는 등, 말하기 과정에서 ‘계획하기’로부터 ‘의미생성’ ‘자기점검’ 과정을 거쳐 ‘표현하기’에 이르는 인지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지 말하기’ 활동에 제한되어 있다.

10) 임창근 & 신혜정(2001)은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음성인식 엔진이 장착된 Talking Max 프로그램을 사용한 실험반과 Role-Play를 사용한 통제반을 비교하였는데 특히 정의적 요인에 긍정적인 변화를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음성 인식 프로그램은 학습자 주도 학습을 유도하여, 평소 소극적이던 학습자들이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한다. 이는 음성 인식기술과 음성 합성 기술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가상 캐릭터가 학습자의 친구와 같은 교사 역할을 수행하여 학습자의 정의적 필터를 낮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III. 결론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 말하기 영역이라는 관찰에서 출발하여, 듣기와 말하기의 인지적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국내의 스페인어 교육에서 말하기의 비중과 교육 실태를 관찰하여 몇몇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중 말하기 영역의 어려움을 낳는 원인으로 절대적인 원어민과의 대화 기회 부족과 이 부족한 원어민과의 면대면 대화에 대한 말하기 수업의 과도한 의존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학습자들의 말하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음성 인식이 탑재된 ‘멀티미디어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고, 대표적인 음성인식 활용 소프트웨어로 『Tell me More Spanish』와, 『Rosetta Stone Spanish』 CD-Rom Title을 분석했다. 이들 자료는 무엇보다 자가학습이 가능하고, 원어민이 부족한 실정에서 컴퓨터가 발음을 교정해주고 대화하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말하기 학습에 연결시킨다는 장점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컴퓨터와의 자유로운 대화와 교감을 꿈꾸는 교수자와 학습자들에게 아직 음성 인식기를 이용한 말하기의 시스템은 제한적이다. 음성인식기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한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지 못해 프로그램화 된 데이터에 한한 발음의 정확도 및 읽기의 정확도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무한대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과 사람의 대화 역할을 대신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은 컴퓨터의 녹음기술, 음성 인식 기술, 음성 합성 장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머지 않아 실제 외국어 교육에 있어 대화체 말하기 활동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평가의 주관성이 배제될 수 없는 ‘말하기 평가’에서 음성인식 합성 기술의 적용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접할 수 있는 음성 인식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한다면, 교수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새로운 매체를 사용할 때, 교사는 전적으로 매체에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말하기 수업에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발음’ 교정에 한정되어 있고, 자유로운 대화가 아닌 제한된 반인지적 면모가 강해, 사전에 미리 면밀히 매체를 검토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체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2001), "Internet para la enseñanza-aprendizaje del español", 『서어서문연구』, 21, 85-104.
- 김성찬(1998), "말하기 지도", 『영어교육입문』, 박경자 외 30인, 박영사, 105-124.
- 김소연(2001),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스페인어 교수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정삼(2001), "음성처리 S/W를 활용한 영어 교과의 말하기 평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숙(2002), "멀티미디어 CD-ROM을 활용한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 연구", 대전대학교, 영어교육 전공.
- 박성민(2001), "스페인어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박윤경(1993), "서반아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방법 연구: 듣기·말하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선부영(2001), "웹기반형 대화형 음성학습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 전공.
- 유영남(2002), "중등학교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교수법 활용",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이동한(2001), "영어 학습용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한계", *STEM Journal*, 2, 65-76.
- _____ (2002), "음성인식을 이용한 상호대화식 영어 학습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안", *STEM Journal*, 3:2, 3-15.
- 이영운(2000), "스페인어 교육과 문화의 통합에 관한 연구: 인터넷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지연(2002),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스페인어 교수방법: 활동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임창근 & 신혜정(2001), "컴퓨터 음성인식(ASR) 기술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 교육”, 『한국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4:2, 187-209.
- 전은주(1999), 『말하기 · 듣기 교육론』, 서울, 박이정, 149.
- 조금순(2000),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스페인어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최인철(1999), “언어 수행평가 분야의 전산언어학 기술 활용”, 『한국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2:12, 245-278.
- 최재철(1999), “스페인어 교사를 위한 인터넷 자료에 관한 연구”, 『서어서문연구』, 17, 297-324.
- 피혜정(2002), “중학교 듣기 · 말하기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 7차 교육과정 듣기 · 말하기 내용 고찰을 통해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한준구(1993), “고교 서반아어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황성혜(1989), “서반아어 교수법에 관한 연구: 듣기 · 말하기 지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황은미(1993),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서반아어 교수 방법 연구: TPR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Asher, J.(1977),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 The Complete Teacher's Guidebook*, Los Gatos, CA, Sky Oak Productions.
- Ellis, R.(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hen, S. & T. Terrel(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양성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어서문학과

전화번호: 011-9635-8029

E-mail: sunghyey@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3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2003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03년 12월 15일